

중국정부 수여 외국인 최고상 수상

▲김응진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교수는 지난달 14일 중국 정부가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최고상인 「우의상(友誼賞, Award for Friendship)」을 수상했다. 우의상은 1991년 중국의

현대화 과정에서 설립되어 문화, 교육 및 과학발전에 큰 기여를 한 외국인 경영자 또는 전문가에게 수여하는 중국 최고 권위의 상이다. 김응진 교수는 2000년부터 연변, 하얼빈 등에

서 3000여명에 이르는 저소득층의 선천성 심장병환아들을 수술한 공로를 인정받아 하얼빈시 우의증에서 장밍(姜明) 상무부시장으로부터 이 상을 수상했다.